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Contents

- 통계로 본 이슈
 - 금년 1분기 러시아 철도 운송량 전년대비 3.5% 증가
- 전문가 칼럼
 - 북방 초국경 협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23개 기업 신규 투자...수산·물류 산업 분야에 93억 루블 투자, 약 2천개 일자리 창출 예상
 - 2017년 북극해 항로 운항 선박 22%(14척) 감소
 - 러시아 외국인 투자, 극동러 지역 1/4 차지
 -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항만의 경쟁력, 철도 노선 확대에 달려
 - 강원도, 극동 연해주와 신규 '크루즈 라인' 공동추진 검토
 - 연해주 불쇼이 카멘, 폐기물처리장 건설 추진
 - 극동지역 화물수용 위한 물류 터미널 '보스토치니', 올 8월 완공 예정
- 주요 통계
 - 2017년 극동지역 국가별 수출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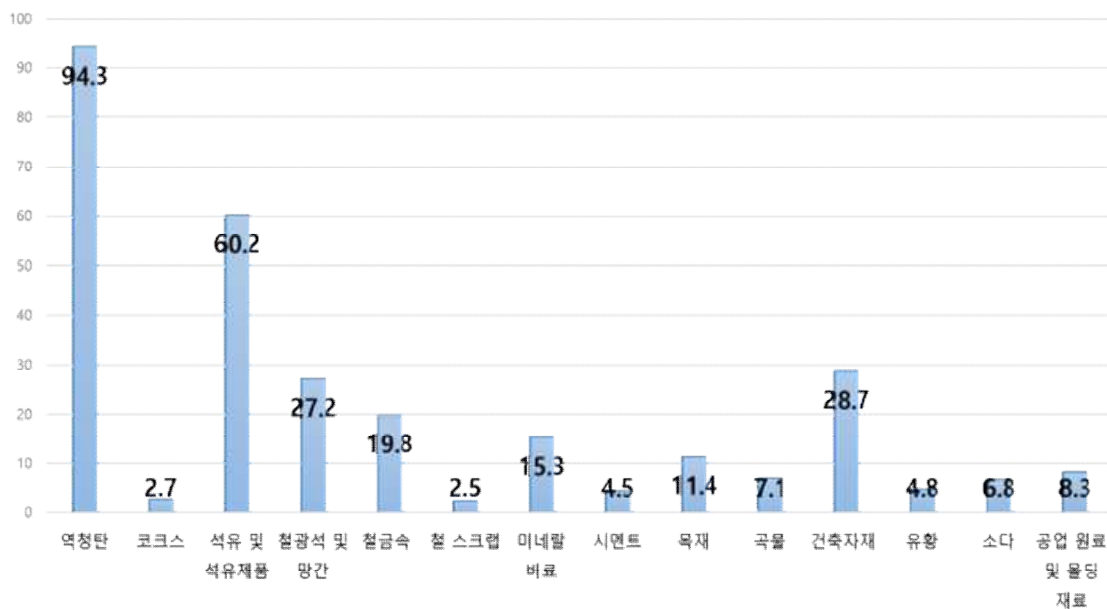
통계로 본 이슈

금년 1분기 러시아 철도 운송량 전년대비 3.5% 증가

- 2018년 1분기 철도 운송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3억 1,570만 톤을 기록함
 - 곡물 운송량은 총 710만 톤으로 전년대비 42.1% 증가했으며, 철금속은 총 1,980만 톤이 운송되어 18.8% 증가했음
 - 반면 석유 및 석유제품 운송량은 1.7% 감소해 6,020만 톤을 기록했으며, 철 스크랩 운송량은 총 250만 톤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했음

상품별 철도 운송량

단위: 백만 톤



자료: <http://infranews.ru/> (검색일: 2018년 4월 3일)



- 2018년 1~3월 공회전율을 포함한 회전율은 8,177억 t-km(+4.6%)를 기록했음
- 2018년 3월 운송량은 총 1억 1,1240만 톤으로 3.1% 증가했으며, 공회전율을 포함한 회전율은 총 2,857억 t-km(+4.1)를 기록했음

■ 참고자료 :
<http://infranews.ru/logistika/zheleznaya-doroga/51156-pogruzka-na-set-i-rzhd-za-i-kvartal-2018-goda-vyroslo-na-35/>(검색일: 2018년 4월 3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전문가 칼럼

북방 초국경 협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

4~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대화의 장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바야흐로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회담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합의 및 최종적인 실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하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에 진입한 것이다.

한반도의 ‘비상한 국면’이 전개되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현실화될 수 없었던 남북러 경제협력의 3대 메가프로젝트(TKR-TSR 연결, 남북러 가스관·전력망 연결)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유라시아와 연계된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당장은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국가간 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지만, 자연스럽게 논의는 포괄적인 대북 경제지원과 역내 경제협력 이슈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 국면을 북방 경제영토 개척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상태인 북한을 뚫고나가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북방의 문’이 열리는 상황을 기대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위기 해소 과정과 동조화해 남북러 3각 협력을 가동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역내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요체는 각국의 지역발전전략과 국



개발전략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新북방정책과 러시아의 新동방정책 사이에 전략적 이익 공유의 접점을 구축해야 한다.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과거와 비교해 진일보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한 지금이 최적기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러시아와 직결되는 육상의 교통로가 열려야 비로소 한-러 경제협력의 결정적 요인인 ‘지리적 근접성’이 허구에서 실체로 변모한다.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극복할 통로가 열려야 극동 개발 진출이 폭발력을 갖고 전개될 수 있다. 대륙과의 접경성을 회복함으로써 해륙 복합국가 건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도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함축한다.

현재 러시아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지역’ 개발이 주로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연해주 극동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초국경 협력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개방을 견인할 북방의 전진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극동개발전략은 ‘single point’ 접근법으로서 ‘선도개발구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향후 그 중심축은 TSR, BAM을 감싸 안는 접경지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극동개발 진출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기업들은 좀 더 장기적 전망에서 확장된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자 리스크 해소 및 자금 조달 원활화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러 제재 국면에서 ‘지레 겁먹고’ 대러 경협을 회피했던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면 동방경제포럼에서 합의한 ‘9-Bridges’ 선언은 공수표가 된다. 4·5월이 지나면 곧 9월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23개 기업 신규 투자...수산·물류 산업 분야에 93억 루블 투자, 약 2천개 일자리 창출 예상

- 2018년 3월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새로이 23개 기업이 투자·참여
- 주된 투자 기업은 수산·물류 산업 분야
- 신규 투자 기업들은 JSC 극동개발공사의 프로젝트 사업에 93억 루블(미화 약 1.6억 달러)을 투자하고 약 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

신규 투자·참여 기업의 주요 투자 내용

기업명	주요 투자 내용
캄차카운송터미널 VDK-SKLAD(VDK창고) LLC (서비스Integrator사할린)	캄차카 지역 수산업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컨테이너 화물 및 포장 제품 보관을 위한 창고 건설
Yudivi 홀딩 그룹	전시장·주차장을 갖춘 카페 건물의 재건축
Sander	농산물 판매를 위한 상점 네트워크 구축
Mirtek	전자 측정 장치 제조
Kronos	자동차 부품 도매 무역
Elbrus	프리모르스키 지역 Moryak-Rybolov의 어업·어류 가공 산업 단지 조성
	울긴스키 지구의 어업·어류 가공 산업 부흥 목적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부, <http://www.nilim.go.jp/>(검색일: 2018년 4월 4일)

- 금번 입주 기업들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



- Alexander Sergeevich Galushka 러시아 극동 발전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반을 조성해 새로운 경쟁적 경제 공간 형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4~5년의 단기간에 3.7조 루블의 직접 투자 효과를 얻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성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산업, 물류, 농업 및 관광 분야에 걸친 1,20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 지역 경제 다양화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함
- Denis Tikhonov JSC 극동개발공사 사무총장은 “현재 러시아 극동 지역의 모든 곳에서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2017년말까지 총 투자 규모 1,568억 루블의 83개 프로젝트, 8천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18년 목표는 1,130 입주 기업(3조 5천억 루블 규모 투자, 9만5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유치 달성과 146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밝힘
- 현재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및 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은 809사이며, 총 투자 규모는 2조5천억 루블(미화 약 434억 달러)에 달함

■ 참고자료 : <https://eng.minvr.ru/press-center/news/14392/>(검색일: 2018년 4월 3일)

한성일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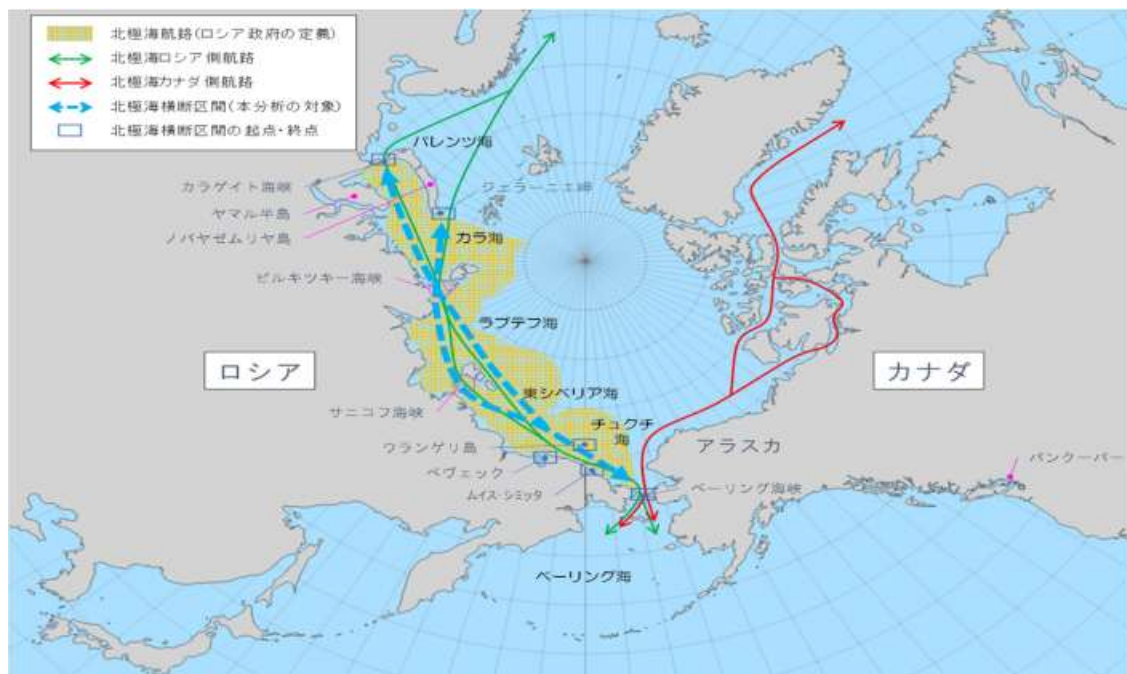
051-797-4781, han@kmi.re.kr



2017년 북극해 항로 운항 선박 22%(14척) 감소

- 일본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¹⁾에 의하면 2017년(6월~12월) 북극해 항로의 운항 선박수가 49척으로 전년 63척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방법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소유한 인공위성의 AIS데이터(선박 위치, 속력 등)를 기준으로 함
 - 선종별 운항실적은 화물선(일반화물선, 벌크선, 탱커 등) 32척, 여객선 3척, 중량물 운반선 8척, 기타 6척임

북극해 항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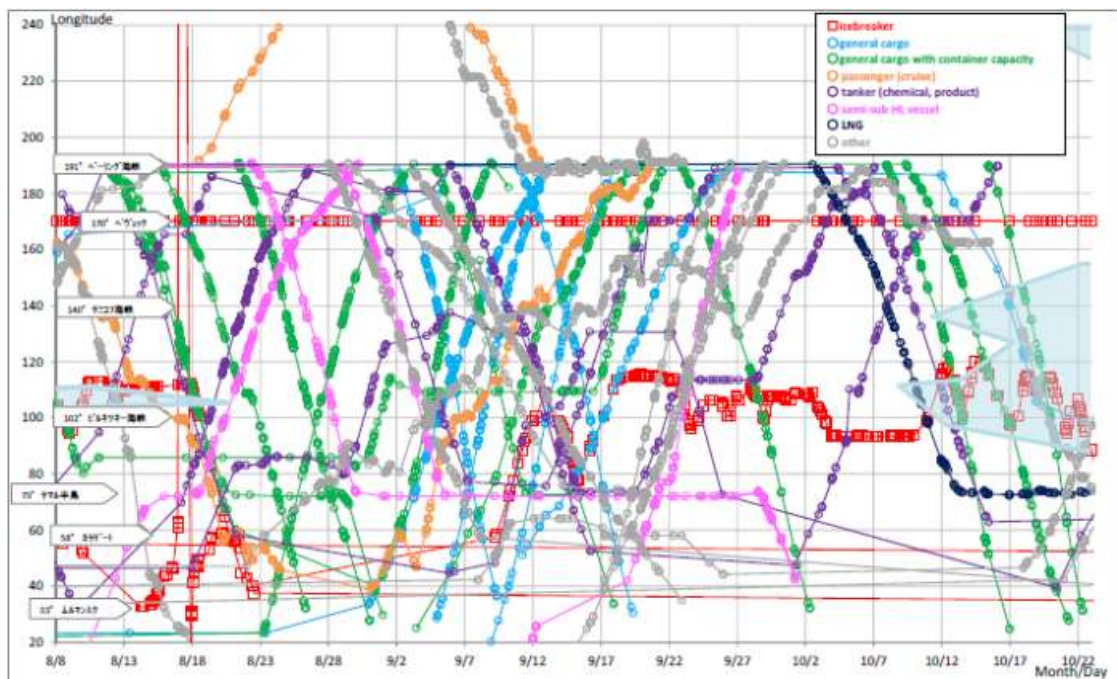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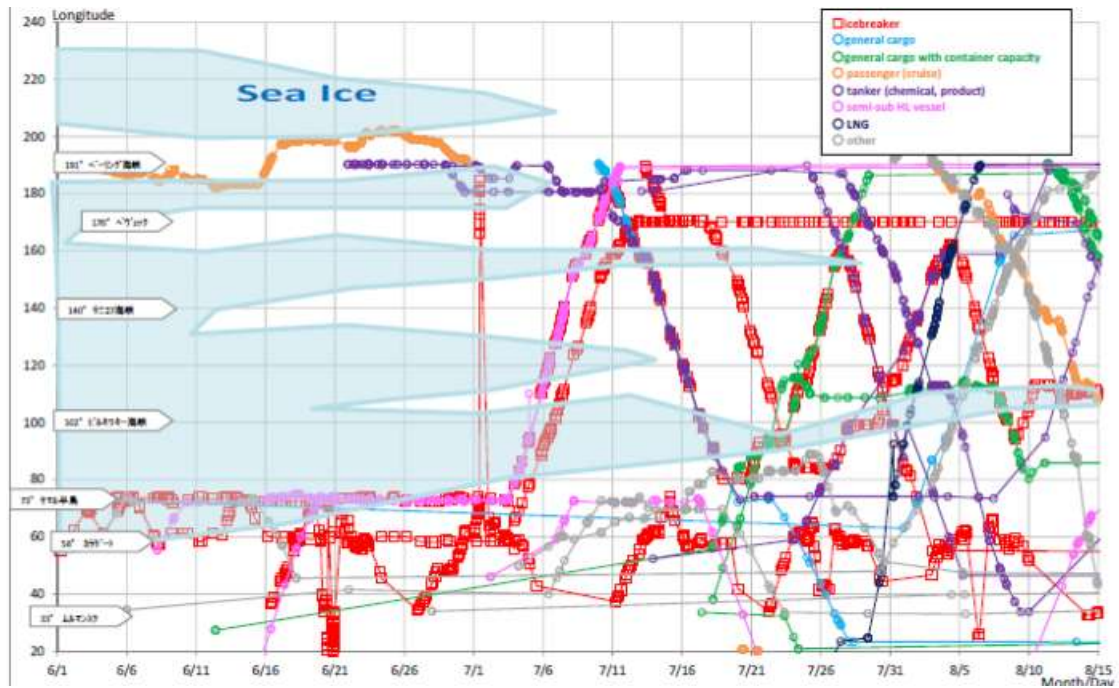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http://www.nilim.go.jp/>(검색일: 2018년 4월 3일)

1)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홋카이도대학, 홋카이도개발국 및 아오모리현의 공동 연구 진행



- 2017년 북극해 항로의 특성으로는 북극해 내 항만 미기항 선박 증가, 쇄빙 LNG탱커 운항, 야말반도의 LNG기지 개발에 따른 선박 운항 감소를 들 수 있음
 - 2017년 북극해 항로 운항 선박 중 북극해 내 항만 미기항 선박이 29척으로 전년 19척 대비 대폭 증가함
 - 쇄빙 LNG탱커(2016년-2017년 건조)가 북극해 항로 운항을 시작해 2017년에 2척이 운항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야말반도의 LNG기지개발 거점인 사베타항에 기항하는 선박은 36척이었으나, 2017년 9척으로 대폭 감소했음
 - 이는 LNG기지 건설이 완료단계에 있어 중량물운반선의 운항 감소('16년 14척 → '17년 5척)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위성 AIS데이터를 활용한 북극해 항로 선박운항 현황 및 해빙 위치를 분석한 결과, 8월~9월 까지는 쇄빙선 없이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위성 AIS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 6월~12월의 북극해 항로를 대상으로 선박운항 현황 및 해빙 위치를 분석함

북극해 항로 선박운항 현황 및 해빙 위치(2017년 6월~10월 중순)



자료: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http://www.nilim.go.jp/> (검색일: 2018년 4월 3일)

- 7월까지의 해빙이 남아있어 쇄빙선과 같이 운항하는 선박이 많으나, 8월 이후는 쇄빙선 없이도 안정적인 속도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이 증가함



- 10월 이후는 해빙조건이 악화되어 운항 척수가 감소하고, 운항 시에도 쇄빙선과 같이 운항하는 선박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참고자료 : <http://www.nilim.go.jp/>(검색일: 2018년 4월 3일)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러시아 외국인 투자, 극동러 지역 1/4 차지

- 지난 4~5년 간 극동러시아 지역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액이 러시아 국가 전체의 약 1/4을 차지함
 - 극동러시아 지역은 혹독한 기후로 인해 러시아 인구의 약 5% 수준이지만 토지는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극동개발부가 발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 혜택 및 세관 절차 완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 4년간 극동러시아 지역에 3조 7,000억 루블(648억 US달러) 규모의 1,200개 외국인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어 냄
 - 현재 극동러시아 지역에는 175억 달러 규모의 가스처리공장, 11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25억 달러 규모의 조선소 등의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로부터 투자유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진해 하바로프스크 지역 펄프 및 제지 공장에 15억 달러를 투자함
 - 또한 인도기업인 KGK社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 다이아몬드 연마설비를 준공했으며 타타파워社は 캄차카 지역에 석탄 매장지를 개발 중임
 -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원자재 가공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것임
- 정치학자 Artem Lukin씨는 이처럼 많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 계획이 발표됨에도 극동개발부의 평가가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근거로 아직 극동러시아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개발 신고금액은 3조 7,000억 루블(약 640억 US달러)에 불과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대부분의 외자 유치가 단순 원재료 수출 산업에 국한됨에 따라 고 부가가치의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함
 - 따라서 지금은 극동러시아지역 투자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며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http://www.atimes.com/article/russias-far-east-accounts-quarter-national-fdi/>(검색일: 2018년 4월 4일)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항만의 경쟁력, 철도 노선 확대에 달려

- 최근 러시아의 주요 화주 및 물류관련 기업들이 극동지역의 항만개발뿐만 아니라 석탄, 석유 등의 벌크화물 운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됨
 -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석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극동지역 항만개발과 더불어 석탄 전용 터미널 사업이 유망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극동지역의 항만은 과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잇는 글로벌 거점 항만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했으나 석탄 등 벌크화물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이에 따라 항만개발과 함께 벌크화물 운송을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 러시아 내 주요 물류기업 및 관련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극동지역 내 철도 운송 능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러시아 및 극동지역의 항만개발 및 대규모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극동지역의 대표적인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를 통해 극동지역 항만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연간 약 20만 TEU로 향후 50만 TEU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화물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철도시설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철도노선의 용량 부족 문제는 블라디보스토크항 뿐만 아니라 보스토치니항, 바니노항 등 극동지역의 주요 항만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에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철도노선 용량 부족 문제에 따른 극동지역 물류시장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2년 내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화물운송 용량 증대에 중점을 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극동지역의 철도용량은 약 66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극동지역 항만을 경유하는 중국 화물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향후 철도 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개선으로 극동지역 항만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기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을 경유한 중국화물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60만 TEU를 기록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초기 예상치인 90만 TEU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러시아 정부는 철도인프라 개선을 토대로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중부 및 북서부 지역으로 운송되는 화물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국 헤이룽장성 내 쉰이펀허와 가장 가까운 중국 항만은 다롄항으로 거리가 약 1,500km에 이르는 반면 블라디보스토크항과의 거리는 230km에 불과함



- 또한 중국 항만 대비 컨테이너당 약 47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시간, 비용 측면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www.joc.com/ 2018.3.30.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강원도, 극동 연해주와 신규 ‘크루즈 라인’ 공동추진 검토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강원도 대표단의 회담 모습



자료: 연해주정부 웹사이트

- 러시아 연해주와 강원도 간에 신규 크루즈 라인(Cruise Line) 설립을 공동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김경호 강원도 글로벌투자국 일본구미주통상과장은 지난달 중순 연해주를 방문해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국제협력관광국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신규 크루즈 라인을 설립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합의함
 - 이날 강원도와 면담 자리에서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 국장은 앞으로 새로운 크루즈 라인을 설립하는데 강원도와 협력할 의사를 표명함
 - 올 초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정부 주지사대행은 양형빈 주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총영사와 만나 양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간 크루즈 노선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 스타리치코프 국장은 또한 강원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해주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이웃이라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높이 평가했음

- 러시아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연해주에서 약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짐

■ 앞으로 두 지역이 연계된 관광사업 또한 확대하기로 합의함

- 김 과장은 강원도와 연해주가 협력관계를 맺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고 양 지역 간의 관광산업은 지금보다 더욱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의견을 피력함

- 연해주정부에 따르면 2016년에 5만 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이 연해주를 방문했으며, 지난해는 10만 명이 방문하면서 연해주가 한국관광객의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한편 강원도 대표사절단은 지난달 15일 연해주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농업식품 박람회’에 참가했음

- 스타리치코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연해주에 한국산 농산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연해주에서 수확하는 농산물 또한 한국으로 수출되길 희망한다며 한국과 더욱 밀접한 협력을 원한다고 밝힘

■ 참고자료: <http://primorsky.ru/news/141264/>(검색일: 2018년 3월 27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연해주 볼쇼이 카멘, 폐기물처리장 건설 추진



즈베즈다 조선소



자료: 러시아 포탈 안덱스

- 연해주 불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 내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될 것이라고 최근 극동 개발부 공보실이 밝힘
 - 불쇼이 카멘은 연해주 제조기반의 메카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선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임
 - 폐기물 수거·처리뿐 아니라 이차원료로 재활용하는 생산단지로 건설한다는 계획임
-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사업 투자사인 알코르(Alkor)와 극동개발공사는 지난달 말 이미 투자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예브게니 아프레모프 Alkor LLC 대표는 조선복합단지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과정과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 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밝힘
 - 폐기물은 대부분 분쇄될 것이며, 최종 단계에서는 다른 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는 금속 및 혼합물 등 잔해물들을 추출할 것이라고 향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함



- 내년 2분기부터 폐기물 처리공정을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생산능력은 연간 107만㎥ 규모이고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알려지지 않음
-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는 ‘로스네프트가즈’, ‘로스네프티’ 그리고 ‘가즈프롬뱅크’ 컨소시엄이 수행 중임
 - 조선소는 대용량 선박, 해양 플랫폼, 쇄빙선을 포함한 특수선박 및 기타 해양 장비를 생산할 예정임
- 한편 볼쇼이 카멘 지역은 드미트리 메드메데프 총리가 선도개발구역으로 신규지정을 지시해 2016년 1월 28일 법적으로 최종 승인돼 연해주의 3번째 선도개발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됨
 - 당시 △수산 식품저장 및 운송을 위한 물류센터 건립, △조선소 프로젝트의 부대 사업으로 조선소 상주 임직원용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했음

■ 참고자료: http://www.dfo.gov.ru/press/news_DV/2561/ (검색일: 2018년 3월 30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극동지역 화물수용 위한 물류 터미널 ‘보스토치니’, 올 8월 완공 예정



- 극동지역에서 운송되는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모스크바주에 위치한 새로운 물류 터미널 ‘보스토치니²⁾’ 건설이 올해 8월에 완공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지난 3월 14일에 극동-모스크바 구간의 철송 시운행이 있었는데, 극동 ‘가이다마크(Gaydamak)’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 에렉트로우그리(Elektrougli)역에 도착함
 - 극동-모스크바 운송일수는 약 11일정도 소요되었으며 이번 시운행에서는 총 95개 컨테이너에 소비재, 산업 화학 물질, 건축자재 등을 실어 운송함

- 약 100ha 크기인 새로운 물류터미널은 ‘뉴 실크로드(New Silk Road)’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프로젝트 1단계가 완료되면 연간 최대 20만 TEU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본 물류터미널은 모스크바 도심과 인접해 있으며 A107도로, 고르코브스크 고속도로 등과 연결이 용이하며 추가적으로 중앙 순환도로 등을 건설해 도로 네트워크를 확대 중임
 - 또한 철도화물 처리가 가능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 약 300~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³⁾

- 새로운 물류터미널 ‘보스토치니’의 화물 수용량은 약 18만 TEU임

 - 1회 화물 처리량은 약 15만 TEU로, 물류터미널 개발이 완료되면 약 30만 TEU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저장창고의 연간 처리량은 약 200만 톤이며 냉장 컨테이너는 약 6,000 TEU 수용 가능함
 - 또한 약 71개의 화차를 수용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물류터미널 개발 단계에 따른 1일 예상 화물처리량은 다음과 같음⁴⁾

2) 공식명칭, Терминально-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ТЛЦ) «Восточный»

3) ТЛЦ Восточный, <http://obltd.ru/info.pdf>, (검색일: 2018년 4월 2일)

4) ТЛЦ Восточный, <http://obltd.ru/info.pdf>, (검색일: 2018년 4월 2일)



프로젝트 단계에 따른 1일 예상 화물처리 (1일 기준)

구분	철도	도로
1단계	6대 컨테이너 열차	300대
2단계	10대 컨테이너 열차	700대

자료: ТЛЦ Восточный, <http://obltd.ru/info.pdf>, (검색일: 2018년 4월 2일)

참고자료 :
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rzhd_zavozit_aziatsko-tikhookeansk_ie_gruzy_v_odin_terminalno-logisticheskiy_tsentr_-_vostochnyy.html(검색일: 2018년 3월 19일)

김은미 리포터

051-797-4776, usea1004@gmail.com





2017년 극동지역 국가별 수출입

(단위: 천 달러)

지역	국가	2017.01.01. ~ 2017.12.31.	
		수출	수입
CIS	아제르바이잔	721.1	557.3
	아르메니아	14,947.1	276.2
	벨라루스	31,650.9	40,265.9
	카자흐스탄	156,884.8	54,872.7
	키르기즈 공화국	135.1	85.2
	몰도바	484.6	140.2
	타지키스탄	114.7	32.3
	투르크메니스탄	245.1	62.1
	우즈베키스탄	484.8	1,756.0
	우크라이나	2,670.0	24,758.0
	소계	208,338.1	122,805.9
그 외	압하지아	89.4	7.2
	호주	6,772.4	7,915.0
	오스트리아	2,134.2	22,887.6
	알바니아	37.0	3.6
	알제리	284.4	-
	앙골라	56.6	-
	안도라	-	0.7
	아르헨티나	470.3	21,704.2
	바하마	-	6.5
	방글라데시	418.6	2,584.1
	벨리즈 시티	-	0.1
	벨기에	2,364,459.5	12,628.8
	베냉	16.8	-
	버뮤다 군도	-	32.9
	불가리아	43.3	452.8
	볼리비아	251.6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0.1
	보츠와나	18,056.6	-
	브라질	876.8	240,421.6
	브루나이	79.1	-
	헝가리	62.9	16,094.6
	베네수엘라	14.6	4.2



버진 제도	1,004.7	-
베트남	65,711.7	34,559.0
가봉	6.0	7.3
가나	16.8	6.9
과테말라	987.4	17.8
독일	21,481.1	93,036.7
온두라스	-	17.2
홍콩	152,545.9	5,948.8
그리스	548.4	24.0
그루지아	0.0	169.7
덴마크	6,730.6	14,865.7
도미니카 공화국	-	93.7
이집트	641,063.3	2,970.6
이스라엘	445,073.1	2,415.6
인도	736,256.5	30,118.2
인도네시아	61,731.1	17,789.7
요르단	-	0.2
이라크	4.0	-
이란	9.3	87.2
아일랜드	16,000.0	509.2
아이슬란드	30.0	4,625.0
스페인	13.1	13,292.6
이탈리아	4,762.1	60,563.7
캄보디아	-	129.0
캐나다	24,037.7	216,982.9
카타르	2,347.7	15.8
케냐	495.1	225.9
키프로스	3,805.2	2.5
카타르	2,347.7	15.8
케냐	495.1	225.9
키프로스	3,805.2	2.5
중국	5,079,872.0	2,690,368.5
콜롬비아	1,237.4	2,517.6
캄보디아	-	129.0
캐나다	24,037.7	216,982.9
카타르	2,347.7	15.8
케냐	495.1	225.9



키프로스	3,805.2	2.5
카타르	2,347.7	15.8
케냐	495.1	225.9
키프로스	3,805.2	2.5
중국	5,079,872.0	2,690,368.5
콜롬비아	1,237.4	2,517.6
콩고	42.0	-
북한	15,065.2	6.4
남한	6,137,521.4	967,241.8
코스타리카	1,070.0	38.5
코트디부아르	-	52.8
쿠바	518.3	4.4
쿠웨이트	188.0	-
퀴라소	-	10.2
라오스	-	23.5
라트비아	127.2	4,191.4
라이베리아	-	1.5
리비아	4.8	0.2
리투아니아	145.9	629.6
리히텐슈타인	-	0.5
룩셈부르크	-	688.1
모리셔스	338.8	8.3
마다가스카르	148.0	-
말레이시아	22,298.5	21,830.9
말리	15.4	6,201.8
몰타	8.5	14.7
모로코	-	65.4
마셜 제도	-	5.0
멕시코	3,383.2	14,638.6
몽골	41,152.2	397.7
미얀마	2,932.0	585.4
나이지리아	4,153.3	73.1
네덜란드	3,569.5	70,610.2
니카라과	36.0	73.0
뉴질랜드	797.4	15,612.0
노르웨이	3,285.0	41,471.1
아랍에미리트	292,657.9	3,656.2



오만	198.6	-
파키스탄	4,499.5	7,479.5
파나마	88.9	-
파푸아 뉴기니	117.0	-
파라과이	-	23,335.8
페루	29,644.3	635.6
폴란드	523.5	3,338.0
포르투갈	-	593.4
푸에르토리코	-	7.7
마케도니아	12.9	-
루완다	-	5.8
루마니아	60.9	29,292.9
사우디아라비아	2,024.4	591.6
스와질란드	-	128.8
세네갈	43.6	5.8
세르비아	53.3	9,049.5
싱가폴	171,952.8	72,432.2
시리아	1,787.4	-
슬로바키아	17.8	735.6
슬로베니아	-	5,211.0
영국	17,922.9	73,844.0
미국	79,691.9	369,721.4
소말리	340.8	52.4
유럽연합	-	1,811.6
수단	-	45.4
시에라리온	-	0.0
대만	391,903.6	39,922.6
태국	89,793.5	35,403.7
탄자니아	52.0	-
트리니다드 토바고	568.3	115.6
튀니스	0.6	8.2
터키	100.4	8,186.1
우간다	6.6	-
우루과이	1,086.5	3,060.4
페로 제도	-	285.0
피지	34.8	-
필리핀	58,162.1	3,155.7



	핀란드	51,674.9	63,761.4
	포클랜드 제도	1,762.3	-
	프랑스	2,378.9	70,700.1
	크로아티아	-	241.3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0.2
	칠레	14,358.9	24,478.7
	스위스	83,292.5	4,590.1
	스웨덴	607.9	9,753.9
	스리랑카	-	3,309.1
	에콰도르	707.3	30,756.0
	적도 기니	5.7	-
	엘살바도르	226.8	15.0
	에스토니아	497.1	8,942.4
	에티오피아	-	5.3
	남아프리카	293.9	9,222.0
	남오세티아	-	2.9
	자메이카	2,095.3	2.3
	일본	4,821,740.8	582,853.7
	기타	9,917.9	72.6
		9.5	-
	합계	22,032,004.8	6,166,123.4

자료: ТЛЦ Восточный, <http://oblтт.ru/info.pdf>, (검색일: 2018년 4월 2일)